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222)(12/9/2022)

제 4 권 성찬에 관한 경건한 권면

2 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선하심이 성찬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남, 3-6 절

겔 3:1-3 - 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입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눅 1:51-53 -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전 3:13 -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딤후 1:12-14 -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3. 보십시오. 주님은 거룩한 자들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고,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인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자인 데도 주께서는 친히 몸을 굽히셔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내게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잔치에 나를 초대하셔서, 천사들이 먹는 떡인 하늘의 양식을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 자신입니다(시 78:25; 요 6:33).

4.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보시고, 이 사랑 속에서 주님의 겸비하심이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님께 지극히 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 목적은 너무나 선하고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셨을 때, 그것은 너무나 달콤하고 즐거운 잔치였습니다. 오, 주님, 주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주의 능력은 너무나 크며, 주의 진리는 너무나 완벽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만물이 창조되었고(창 1 장; 시 148:5), 주님이 명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5.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주 나의 하나님께서 작은 떡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셔서, 그 몸을 받아먹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고, 믿을 가치가 있는 일이며,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만유의 주여(시 16:2), 주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셨사오니, 나의 마음과 몸을 흠 없이 지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전하고 기뻐하는 양심을 가지고서, 주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기를 영원히 기념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별하시고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여, 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주의 몸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6. 내 영혼아, 이 눈물 골짜기에 남겨진 네게 이토록 고귀한 선물과 특별한 위로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 신비를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때마다, 너는 주님의 구속사역을 재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주의 속죄제사의 효력은 결코 고갈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성찬을 준비하고, 구원의 큰 신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찬을 거행하거나 참여할 때마다, 그 성찬은 네게 위대하고

새로우며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 즉, 성찬 속에서 너는 바로 이 날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모태 속으로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신 모습, 또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과 해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양식에 비유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을 주시고 육적으로도 살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영의 양식을 주셔서 영이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치셨다. 신 8:3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이시는 체험을 했다. 겔 3:1-3 - 1.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3.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입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러한 성경의 기록은 말씀이 영의 양식임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요 17:17 -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엡 5:26 -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히 행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함부로 횡포를 부리는 사람은 낮추시고 심판하시지만, 낮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일으키시고 부요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은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다. 눅 1:51-53 -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52.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53.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한 먹고 마심 그리고 일하게 하심으로 낙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전 3:13 -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 5:18 -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께서 주신 삶 자체로 인하여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갈 1:15 -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딤후 1:12-14 -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황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열두 명만 가장 가까이에 두시며 사역하게 하셨다(눅 6:12-13). 비록 열두 제자의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그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그 선택은 곧 은혜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큰 복과 상급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도 영의 양식을 주시는 은혜, 낮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높이시고 부요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은혜, 삶을 영위하며 낙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사명을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날마다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영적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2.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환을 비롯해서 인생의 각종 환난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과 해결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3.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영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미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